

경인일보(96년~현재)



수원상의, 이준영 교수 2026년 트렌드 특강

수원상공회의소(회장·김재옥)가 지난 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조찬강연회를 열고 2026년 트렌드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트렌드코리아’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이준영 상명대 교수를 초청해 ‘트렌드를 알면 소비 패턴이 보인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수원상의 회원기업 관계자와 기관·단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2026년 ‘말띠의 해’를 상징적으로 해석한 ‘HORSE POWER’를 키워드로 내년도 주요 트렌드를 제시했다. HORSE POWER는 휴먼인 더 루프(Human-in-the-loop), 필코노미(Feelconomy), 제로 클릭(Zero-Click) 등 총 10개 핵심 변화의 약자를 조합한 개념으로 소비환경과 기술 흐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키워드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고 있지만 기술을 완성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AI 시대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과 개인이 나다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